

'삼국유사' 마케팅 인각사 문화랜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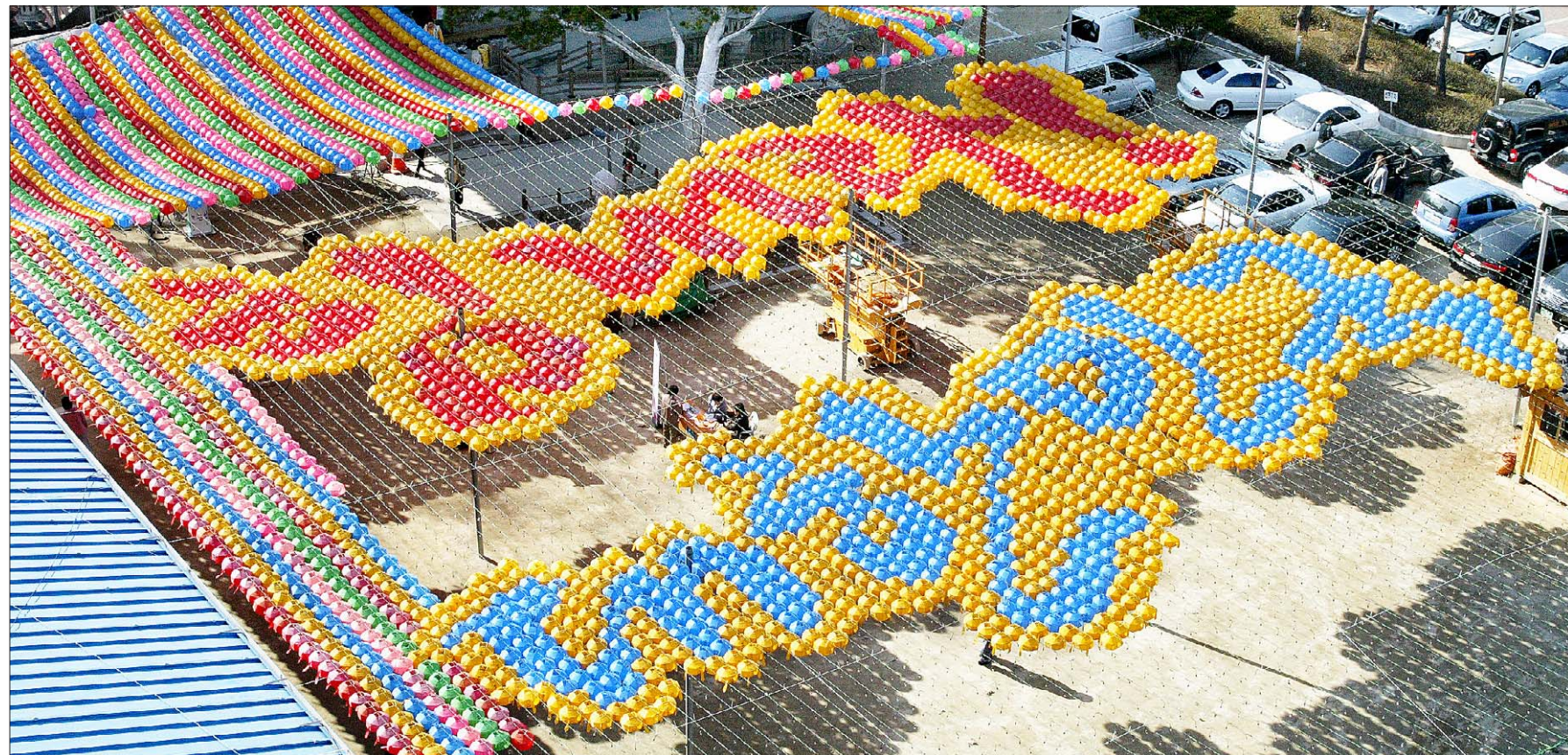
경북 군위군(군수 박영인)이 '삼국유사' 마케팅을 펼쳐 눈길을 끈다. 국보 제306호인 삼국유사가 700여 년 전 군위 인각사에서 보각국사 일연 스님(1206~1289)에 의해 편찬됐다는 점을 알려 지역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군위군은 3월 26일 군위군청내 새마을과에 '삼국유사' 부서를 신설하고 홍보 및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에 앞선 3월 21일 대구 경북연구원에 인각사 일연 조성될 '삼국유사 문화랜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또 삼국유사 전문가 13명으로 '삼국유사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3억 원 예산의 대형 조형물(가로 7m, 세로 5m)과 예산 1억 5000만 원을 배정해 대구·군위 운행 시내버스 및 택시 140대의 부에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광고판을 부착할 계획이다. 또한 군위를 군위교육문화체육관광도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삼국유사 시가집을 각 3000부 제작, 전국 지자체 및 공공 도서관, 출향인 등에 배부하며, 470여 군 전체 공무원들의 명함에도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라는 문구를 새겨 넣도록 권유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힘내라 대한민국'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전국의 주요 사찰들이 본격적인 봉축 준비에 돌입했다. 특히 서울 조계사(주지 세민)는 최근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메시지로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문구를 연등으로 장엄해 불자들이와 국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가난한 자의 연등 더 밝았듯이

부처님오신날 앞두고 준비 한창...경제 한파 녹이는 '봉축' 기대

5월 2일 부처님오신날을 한달 앞둔 때, 전국 사찰마다 삼삼오오 둘러 앉아 손끝을 땀나게 물들이며 연등 만들기가 한창이다. 경제 한파에서는 흥겨운 음악에 맞춰 선남선녀들이 봉축행사에 선보일 율동을 준비하는 광경도 심심찮게 목격된다. 크락이 따로 없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용사태는 세계 경기를 공황상태에 빠뜨렸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주가와 환율은 오동 치고, 실물경기는 곤두박질 치고 있다.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나고, "살기 힘들다", "어렵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들려온 지도 오래다. 불교계의 따뜻한 관심이 없다면 모두가 행복해야 할 부처님오신날이 그들에게는 그저 고단한 어느 하루와 같기 십상이다.

3월 24일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지관, 이하 봉축위)가 발표한 200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일정에는 축제 속에서 동체대비(同

體大悲)를 실천하려는 봉축위의 고민과 배려가 가득 담겨있었다.

#어려운 이웃위해 燈 밝히

올해 봉축행사는 '나눔'을 기쁨 함께 하는 세상'이라는 표어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이웃과 나누며 함께 극복하는 노력을 모아 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로 기획했다. 봉축행사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부처님오신날 △젊은 층과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 △전통문화 계승 발전시켜가는 부처님오신날 △세계인과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로 나누어 마련했다.

봉축위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봉축행사를 정점으로 각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교도소 양로원 군부대 등 위문행사, 사찰별 결연을 통한 소년·소녀가장 돕기, 특기노인 돕기 다문화가정 돕기 등을 독려하는 한편, 조계종 자비

나눔 운동을 활용한 이웃돕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저소득·실직가정을 위한 자비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프로그램들은 두 손을 펴고 저갯거리에서 드는 '입천수수(立垂手)'를 실천하는 모양새다.

저소득·실직가정을 위한 '희망의 등달기'를 통해 모아지는 등공양비 중 1000원씩은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 27일 조계종 전국 사찰들이 1배 108배 모금법회를 봉행한 것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함이었다.

자비나눔을 통한 이웃돕기를 중심으로 젊은 불자에 대한 격려와 배려, 가로연등 준비에 중점을 둔 전통문화 계승,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을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와 함께하는 봉축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 봉축위의 계획이다.

#연등축제 또 하나의 나눔 마당

봉축 분위기는 4월 14일 오후 7시 서울시청 앞에서 봉축탑을 점등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연등축제가 열리는 26일에는 오후 1시 장충체육관에서 서울올림픽마당, 오후 4시 30분 동국대에서 화합한마당이 있는 후 오후 6~11시에는 조계사 앞까지 연등행렬이 있을 예정이다.

예년과 달리 출발지가 동국대로 변경되면서 연등행렬 구간은 700미터 가량 늘어났다.

연등축제 당일에는 12시부터 조계사 앞길에서 불교문화마당도 펼쳐진다. 전날인 25일 오후 7시부터는 연등놀이도 기획했다.

이와 함께 9일에는 청계천 연등전시, 24일~5월 5일까지 삼성동 불

은사에서 전통등전시회가 열린다. 부처님오신날이면 각 사찰마다 봉축 연등 모임을 한다. 이 시기엔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가 빈터 난타의 사연을 담은 '빈자일등(貧者一燈)' 일화다.

가진 것 하나 없던 난타가 부처님에게 등공양을 올릴 수 있던 것은 난타의 구걸에 한 푼을 적선한 이와 기쁨을 사려난 난타를 가늠하여 여겨 한 푼 어찌보다 훨씬 많은 기쁨을 주었던 기쁨집 주인의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강한 바람 속에서도 유독 꺼지지 않고 환히 어둠을 비출 수 있었던 빈터 난타의 등(燈)은 그녀의 신심 뿐 아니라, 그녀를 도운 이들의 자비와 보살행이 있어 가능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우리 시대 제2, 제3의 난타의 출현을 위한 불교계의 자비가 더욱 기다려지는 까닭이다.

조동섭 기자 cestana@buddhapia.com



선지식을 찾아서
▶14 도영 스님



15억 기증
▶6 종지 스님

- ▶11 장보고가 맺은 인연
- ▶19 유심아카데미에 기바

용문사 운장대 운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운장대(보물 제684호)

기축년(운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운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운장대를 둘러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종종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운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목각삼존불, 세조의 고지, 쾌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운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운장대를 둘러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보문사, 장안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운장대를 둘러서서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용문사 소시는 길

버스: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승용차(서울):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 I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함창 IC

승용차(부산):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승용차(대구): 중앙고속도로 → 인동 → 예천 IC

삼사순례도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문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391 (우)757-800 / 전화: (054)655-1011, 011-336-4665 / 전송: (054)655-8405

법구경

지혜로운 수행자는 장애물을 태우는 불처럼 자신의 길을 향해 나아간다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능인향당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향·조각·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직영매장)

불경금액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춘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문의 (02)722-1850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사무소: 인사·형사·가사·행정

13명 변호사 031)436-3054 (010-7504-4521)

얼대과일 두리안 전문

보이차, 각종 차류, 생활 도자기

창다원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